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8월 9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로마서 16장 17절

설교제목 : “믿음으로 믿음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을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롬1:17)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의 믿음은 칭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뒤의 믿음은 성화적, 성숙한 믿음입니다. 가령, 창세기 15:6에서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칭의적 단계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12에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 성화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창세기 15:6의 믿음과 창세기 22:12의 믿음은 다릅니다. 창세기 15장은 칭의적 믿음이고, 창세기 22장은 성화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란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롬1:17)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적 의미이고, 하나는 관계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법정적 의미란, 우선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여 한 행동은 의로운 것이고, 그것을 거슬러 한 행동은 불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란 의로운 행동은 상주시고, 불의한 행동은 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적 의미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 인간을 반드시 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받아야 할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은 곳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벌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곳입니다. 둘째는 **관계적 의미**입니다. 관계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의는 근본적으로 관계에서 오는 의무를 다하는 것, 관계의 신실함의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관계는 그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의무가 부여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창조 언약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을 보살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지 못하여 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죄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오히려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을 배신하고 죄에 빠졌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با 노릇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 즉 신실하심이 나타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한 자신 쪽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을 해주기 때문에 구원이 오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건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구원의 시작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7장 2-4절을 봅시다. 본문은 스테반 설교의 첫 부분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스테반의 설교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스테반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이방인에 지나지 않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6에서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 창세기 22:12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 까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요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의의 역사,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과 기다림과 열심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욕망이 있어서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월해서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달려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은 우리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하나님의 의에 담겨진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 3) 사도행전 7:1-4에서 스테반의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